

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구 기업 아린티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최장: 노대행/발행인: 김평진/편집: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0월 2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95호

“아직도 방송매체에서 불교가 편파적으로 왜곡 보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자들이 드물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90년 창립때부터 보수도 없이 보리방송모니터회의 온갖 곳을 돌며 도맡아 하면서 불교가 일반인들에게 왜곡 방송될까봐 눈과 귀를 중국 세우고 사는 자원봉사자 조씨(35).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조씨는 10여년전 개인 수행을 하고 싶어 방송선원에 들어가 정진하는 동안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사회 참여 운동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조씨가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보람있게 기억하는 것은 93년 MBC-TV 불법 선교방송을 중단시킨 일. 당시 MBC-TV 프로였던 ‘영복여로의 초대’는 미주 일요일마다 조용기목사를 출연시킨 선교방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를 본 보리방송모



니터의 김재일회장과 조씨는 이는 방송법을 위반한 특정 종교의 선교 방송이라는 서한과 공문을 각 사회단체와 정부 관련기관 및 방송국 등에 수 차례에 걸쳐 보내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MBC에서는 방송 중단이라는 극악 처방을 내렸다. 또 95년에는 공중파 방송에 나가는 ‘신인 에벤에셀’ 의류 광고에 ‘주일날은 쉽다’라는 특정 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등장하자 이 역시 정정해 줄 것을 계속 요구. 방송광고공사에서 광고방송 중단 명령을 내린것도 조씨에게 큰 힘이 됐다.
 “부처님의 말씀이 오도돼 전해지는 것은 불자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적극 막아야 합니다.”
 현재 조씨는 방송 모니터일 외에도 보리방송모니터회보 편집, 모니터 요원 관리, 일반 시민단체와의 교류 등에 힘쓰며 10여년전 스스로 서원했던 불교 사회 운동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기준거래 없이도 빠르고 공정하게 대출해 드립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화 051)633-9120~3
불교신협 부산동구 범일2동 834-20

한-일 불교대학협 구성

11월2·3일 동국대서 12개 대학 총장회의
 ‘21세기 불교계대학 나아갈 방향’ 기념강연

한국과 일본의 불교대학들이 “한일(韓日)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협의회”를 구성, 양국의 불교 발전과 더불어 불교대학 간의 활발한 교류 및 도약을 위한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간다.
 동국대 중앙승가대 위덕대 원광대 등 국내 4개 대학과 용곡대(龍谷大) 구덕대(駒澤大) 대정대(大正大) 등 일본 8개 대학 총장들은 11월2~3일 동국대에서 총장회의를 갖고 한·일 불교철학계 총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협의회’ 구성은 과거 한국불교가 일본에 영향을 미



스님들 전산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임도)은 21세기 정보화사회속에서 스님들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님 전산교육을 19일~23일 오후 2시~5시 동국대 전산원 멀티미디어실에서 실시했다. 처음 실시된 이번 전산교육은 각 본사의 주요요임을 맡고 있는 스님, 종단 교육기관 교역자 스님 등 27명이 참가해 컴퓨터의 개념 및 기본사용법, 문서편집법, PC통신, 인터넷 활용법 등을 숙술했다. 이은지 기자(ejee@buddhapia.com)

“월주스님 3선반대 공동노력” 실천승가회·연대회의에 질의

월탄·설조·지선스님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로 나설 의향을 밝힌 월탄스님, 설조스님, 지선스님이 월주스님 3선 반대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세 스님은 22일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출마예정 후보 3인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3선문제에 대해 원로대덕 스님들과 중도들의 의견을 받들어 책임있게 나서기로 함과 동시에 중단이 하루빨리 안정과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 스님은 이과관련, △3선문제 정리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3선문제의 해결은 종단의 진통에 입각한 대중공사를 통해 해결한다.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여법하게 치뤄져야 한다. △누가 총무원장에 당선되더라도 사부대중 모두가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등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임연태 기자(yitim@buddhapia.com)

월주스님 후보 추대위
 송월주총무원장후보추대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실천불교승가회와 연대회의에 공개질의합니다’ 제하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추대위는 질의서에서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에 대해 “꼭같은 선거공토 조성을 위해 본연의 입지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지 불교승가회에 대해 ‘3선’기간 중단개혁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개혁을 표방하면서 광소 대중의 지탄을 받고 있는 송월주와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 △진관스님과 해종원위자들이 공동으로 받고 있는 사면복권 추진에 내용적으로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 △정정사항을 법규위원회에 상관청구하겠다고 한 약속은 아직도 유보한 것인가. △인론에 이번 선거를 분류로 물어야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선전하는 것은 해종원위와 생각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을 보냈다. (선거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교계 대학의 역할과 위상 등을 논의하는 공식행사가 될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협의회’는 97년 9월, 동국대 송석구 총장이 일본 불교철학계 대학 협의회 초청을 받아 참석한 특별감연회에서 일본측에 처음 제안. 지금까지 발족을 위한 준비가 진행돼 왔다. 일본에는 현재 78개 불교계 대학이 설립되어 있고 이 중 53개 대학이 협의회를 구성,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송석구 총장은 “이번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협의회 결성을 계기로 양국 불교계 대학의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 협의회 구성 후, 아시아 각 나라의 대학협의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장회의 첫날에는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21세기 불교계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념강연회가 열렸다. 송석구 총장과 기타바타케 연세 총장이 주제강연에 나서며, 3일에는 협의회 구성과 앞으로의 운영 및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송석구총장 재선 22일 동국학원이사회
 동국대 송석구 총장이 내년 2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제14대 총장으로 재선출됐다. 이사회는 22일 제157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송석구 총장을 차기 총장에 재선출했다. 이사회는 일산 불교종합병원 건립 등 사업의 원만한 회합은 물론, 송석구 총장이 지난 4년의 임기동안 3년연속 교육부 선정 우수대학 평가 등을 통해 학교위상을 강화하는데 세운 공로를 인정해 재선출에 합의했다. 김정은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11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속리산 법주사,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등을 찾아가입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정이홍승(천연기념물 제103호),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목조 5층탑인 팔장전(국보 제55호),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 세계최대 규모의 청동미륵대불 등으로 널리 알려진 법주사를 참배합니다. 또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제조한 흥덕사가 있었던 곳으로 인쇄술의 발달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월 “금속활자를 통해 본 선조들의 슬기”
 법주사·흥덕사지(고인쇄박물관)
 ○출발: 11월15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비: 3만원(점심 제공, 박물관 입장료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해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X(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해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여성 실직자 쉼터 2곳 개설 23면
조계종 총회의원 후보명단 3면

공·동·기·자·회·견·문

송월주 총무원장 3선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월탄, 설조, 지선

먼저 존경하는 중정예하와 원로대덕스님, 중진스님 및 중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삼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지금 우리 종단은 현 총무원장의 3선에 대한 문제로 내용에 휩싸여 있으며 종론의 분열과 종단의 혼란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총무원장의 3선문제가 이처럼 심각하게 된 데에는 우선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3선 저지로 시작되었던 개혁불사의 최대 수혜자이자, 제28대 총무원장 4년 임기중 중단분열과 실정의 당사자가 중도들의 여론과 중헌증법을 무시하며 또다시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종단을 이끌고자 29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후보 이전에 책임있는 중도의 한사람으로서 그에 맞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현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나서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취지로 제29대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우리 3인은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3선 문제에 대해서 종단의 원로대덕스님들과 중도들의 의견을 받들어 책임있게 나서기로함과 동시에 중단이 하루빨리 안정과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 1. 3선문제의 정리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3선문제의 정리없이 우리 종단이 혼란의 불씨를 지닌채 말바람을 안고가는 형국에 처하게 될것이며, 따라서 먼저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선거를 치루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종단 혼란의 또다른 원인제공자가 되는 셈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단의 역량을 살피며 때 선거 개시일은 11월 2일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원로중진스님들의 지혜와 중도들의 의견을 진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구한다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3인 또한 출마 예상자보다는 종단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당사자인 송월주 총무원장 또한 중도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를 위한 방법’을 찾아 불행한 사태를 막기위한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 2. 3선문제의 해결은 종단의 여법한 전통에 입각한 ‘대중공사’를 통해 해결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종단 지도자 대화모임’을 제한하며 이 자리는 3선문제의 당사자인 송월주 총무원장스님과 우리 3인 그리고 종단의 중진스님들이 참석하여 대중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송월주 총무원장스님에게 대승적 견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분명한 의견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 3.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반드시 여법하게 치뤄져야 한다.**
 오늘 우리 3인이 전격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가 중헌증법을 수호하여 종단의 화합과 안정의 기틀을 잡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3인은 3선문제로 인한 중헌 유린사태를 막고 중헌증법에 입각하여 총무원장 선거는 반드시 여법하게 치뤄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누가 총무원장에 당선이 되더라도 사부대중 모두가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지금 종단내외의 상황은 우리의 결단과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각자 자신이 할수 있는 말은 바 소임을 다할수 있도록 위법방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용맹정진 합니다.

불기 2542년 10월 22일
월탄, 설조, 지선